

MZ세대 '최애 간식' 탕후루 환경미화원엔 '흥기'

종량제 봉투마다 꼬챙이 가시처럼 박혀 찢리는 사고 잇따라 설탕 범벅 막대기 길거리 버려져 벌레 꼬이고 주민 안전 위협

MZ세대 간식으로 통하는 '탕후루' (糖葫蘆)의 꼬챙이가 광주 도심에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마다 꼬챙이가 가시처럼 박혀 청소하는 상가주민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잇따라 다치고 있다. 청소년들이 꼬챙이를 버리기 귀찮아 종량제 봉투에 꽂아넣기 때문이다. 설탕액이 묻어 있는 꼬챙이는 상가와 길에 버려져 벌레가 들끓고 있다.

최근 광주 도심에도 탕후루 열풍이 불고 있다. 탕후루는 중국 전통 길거리 음식으로 딸기와 파인애플 등을 꼬챙이에 꿰어 설탕을 녹여 입힌 간식이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광주지역 탕후루 가게는 20개에 달하고 이 중 25%가 종량로 1-3가에 몰려 있다.

문제는 실종된 시민의식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시민들이 꼬챙이를 길가에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있었다. 이미 꼬챙이 꽂아져 된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찢

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무렇게나 쑤셔넣은 꼬챙이는 상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형상가에 입주해 있는 한 상인은 "손님이 버리고 간 탕후루 꼬챙이를 절반으로 깎아 버리려다 최근 손바닥을 크게 다쳤다"면서 "이 정도로 심각하면 지자체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충장로 환경미화원들은 "부상 위험 때문에 쓰레기 봉투 치우기가 겁난다"고 토로했다. 8년째 충장로를 맡고 있다는 A씨는 "종량제 봉투에 박힌 꼬챙이에 찢려 손바닥을 다치고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며 "길에 떨어진 꼬챙이가 너무 많아 일일이 줍기도 힘들어 고역"이라고 말했다.

16년 차 환경미화원인 B씨도 "쓰레기 봉투를 들어올릴 때면 꼬챙이가 품안으로 '쑹' 들어올 때가 있다"며 "쓰레기 봉투에 담긴 깨진 유리 칸 등이 몸을 찌를 때와 같이 식겁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20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가게 앞 종량제 봉투에 탕후루 꼬챙이가 꽂혀있다.



충장로의 한 식당에서 버린 쓰레기 봉투에 '탕후루 꽃이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있다.

시민들은 탕후루를 먹다가 흘린 설탕액에 벌레가 꼬이고, 밟으면 신발 밑창이 끈적거린다고 불평했다. 또다른 상인은 "손님들이 꼬챙이를 들고 상가에 들어와서 꼬챙이를 버리곤 하는데 설탕 덩어리가 바닥에 눌러붙으면 뜨거운 물을 끼얹지 않으면 청소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충장로 상인들은 출입구에 '탕후루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글귀를 붙여야 하는 지경이 됐다. 일부 상가에서는 쓰레기 봉투 위에 '탕후루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는 당부 글을 붙여놓기도 한다. 탕후루 가게 업주들도 가게 앞에 쓰레기통을 두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허사다. 음식 특성 상 매장에서 벗어나 손에 들고 다니며 먹기 때문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충장로 상인은 물론 시민들이 탕후루 쓰레기 관련 민원을 술하게 제기하고 있다"며 "구청에서 꼬챙이 음식 판매업주들에게 쓰레기를 잘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슬람 사원 사용 가능성 이유 영암군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씨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영암읍 부지에 단독 주택 용도(다가구 주택·1층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영암군은 4회에 걸쳐 보완요청 등을 하며 착공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착공신고서를 처리하지 않는 대신 영암군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건축허가상 용도 이의 종교시설로 신축 사용하는 사실에 대해 청문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영암군은 A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자 같은 해 9월 '건축물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종교시설로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을 어기고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한 사람에게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이 건축물은 추후 종교시설(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면서 "하지만 건축물이 종교시설로 이용될 염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A씨가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범죄 실행 선고 실업팀 선수 광주 북구 퇴직금 지급해 논란

광주시 북구는 20일 산하 실업팀 운동선수 A씨가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달 초 퇴직금 18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퇴직금 수령 당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1월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북구는 A씨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A씨가 신분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법기관의 수사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북구로서는 범죄 혐의와 기소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북구는 A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환수를 검토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퇴직금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공연 즐기며 입시 스트레스 '훌훌'

호남대 입시설명회에 참여한 광주지역 학생들이 19일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호남대학교 중앙 잔디광장에서 학교에서 마련한 공연을 즐기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유족회도 5·18행사위 빠졌다...공법 3단체 모두 탈퇴

"부상자·공로자회 제명 과한 조치" 공법단체인 5·18민주유공자 유족회(5·18유족회)까지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5·18행사위) 행사위원장에서 공식 탈퇴했다.

5·18유족회는 최근 광주시와 5·18행사위에 '행사위원장과 행사위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43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행사위원장에 이름만 올려졌으나, 내년부터는 아예 기념행사에서 빠지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5·18 공법 3단체 모두 5·18행사위에서 손을 떼게 됐다. 다른 두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는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특전사동지회와 화해 선언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행사위원장에서 제명됐다. 특전

사동지회는 5월 강경진압에 대한 사과 없이 군복을 입고 국립묘역을 참배,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양재혁 5·18유족회 회장은 "두 공법단체를 5·18행사위에서 배제한 것은 과한 처사였다"며 "5·18행사위에 5·18유족회만 남아 있는 것은 자칫 공법단체들 간 분열로 비칠 수 있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다.

이어 "5·18유족회는 5·18행사위와 어떠한 마찰도 없었다"며 "다만 5·18정신 헌법 수록, 5·18의 세

계화 등 공법단체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에 힘을 모으기 위해 탈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내년 제44주기 5·18전야제에서 공법 3단체와 5·18행사위가 별도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18 공법 3단체가 지난 14일 "44주년 기념행사부터는 공법 3단체와 정치색을 배제한 시민단체들이 행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은 "5·18행사위와 공법3단체장들이 화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론의 장을 열어 5·18행사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말과 말다툼 초등생 찾아가 위험 광주지법 아버지에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에 6개월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딸 B(8)양이 전화로 '친구들과 말다툼했다'고 하자 지난해 4월 27일 오전 10시30분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고향을 치며 C양의 이름을 부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딸의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동안 교실에 있는 C양을 찾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양이 지난해 5월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한 점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 학부모도 범법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동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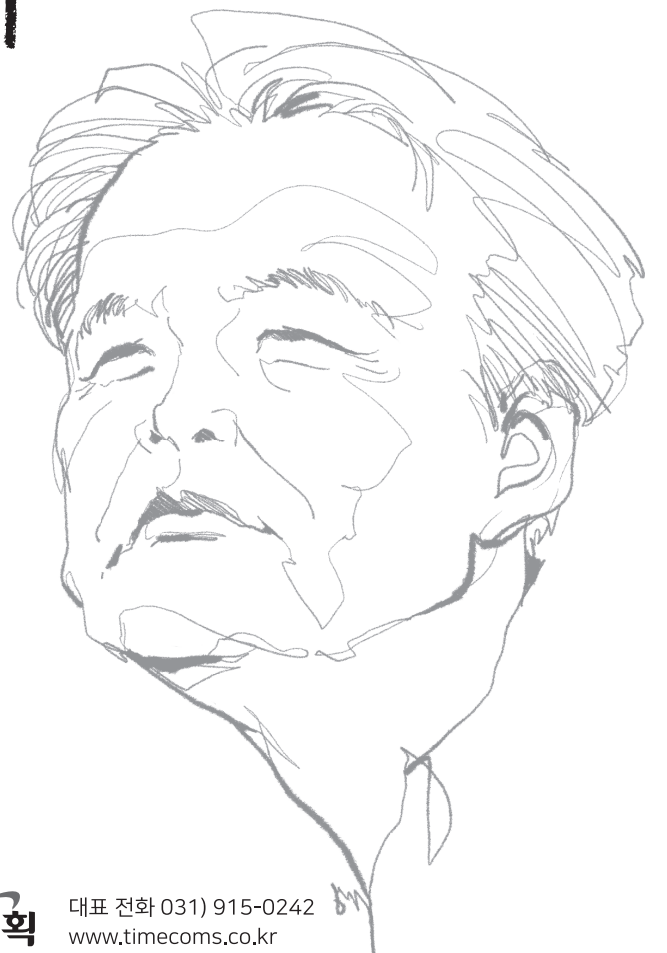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